

매쉬업을 이용한 대학도서관의 통합정보검색 현황 및 개선방안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of Integrated Information Retrieval of University Digital Libraries Using Mashup

강정원,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mimi1725@hanmail.net

김현희,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kim0192@chol.com

Jeong Won, Kang,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

Hyun-Hee, Kim, Prof. Department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Myongji University

본 연구는 개방.참여.공유를 통한 정보창출과 활용의 목적으로 시작된 웹2.0 서비스의 하나인 매쉬업 검색기능에 대한 대학도서관 이용자들의 사용실태 및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SNS에 대한 이용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도서관 통합검색의 기능향상과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1. 서 론

1.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웹2.0의 장점은 인터넷상에서의 정보들의 개방과 참여를 바탕으로 한 공유이다. 이렇게 공유된 정보는 통합과 창출이라는 단어들과 합쳐지면서 사용자 스스로 새로운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게 하였다. 웹2.0의 대표적인 사례인 구글맵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는 개인의 홈 페이지에 연결하여 부동산이나 여행 안내 사업 등의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는데, 매쉬업(Mashup)은 바로 이러한 Open API 기반으로 새로운 정보를 통합하고 창출하는 방법이다(오승진, 양정진, 2012).

도서관에서도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학술 정보 제공 포털(NDSL, RISS 등), 일반검색 포털(구글, 다음, 네이버, 플리커 등) 등을 개방형 자료로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하고 있다. 소장하고 있는 도서관 자료만으로

국한하지 않고 정보를 개방하고 공유함으로써 이용자가 찾는 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형태의 검색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공개된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새로운 자료를 구축하기 위한 비용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매쉬업 검색의 적용이 주는 장점뿐만 아니라 이용적 측면에서의 활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IT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이를 통해 만들어진 인터넷시대는 정보의 흐름이 일방향이 아닌 쌍방향적 흐름으로서 이용자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블로그를 시작으로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SNS(Social Network Service)가 스마트폰과 결합하여 급속한 성장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많은 사람들이 콘텐츠를 쉽고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하고 직접 참여하여 생산하는 소셜콘텐츠들의 등장을 이끌어내었다.

이 연구는 이렇게 급변하는 웹2.0시대 속에 이용자가 선호하는 패턴의 변화에 맞는 도서관 검색 기능을 찾아야 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을 가진다. 이를 위해 먼저, 국내 대학도서관 매쉬업 서비스에 대한 사용실태를 조사해 보고, 최근 활용률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국내 SNS의 경향을 살펴봄으로써, 이를 토대로 도서관 검색기능의 향상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2. 선행연구

2.1 웹2.0서비스 및 매쉬업

천동석 등(2008)은 Open API를 통해 만들어지는 매쉬업은 한정된 범위 및 키워드 질의만 가능하다는 단점과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Open API의 종류와 양은 사용자에게 자신에게 알맞은 서비스를 찾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웹서비스 검색에 Open API를 적용한 검색 시스템이 더 효과적인 검색을 제공해 준다고 보았다.

구중익(2009)은 온라인목록의 Open API 기반 일반 검색시스템과 온라인목록의 Open API기반 메타 검색시스템을 구축하고 두 실험 시스템의 사용성을 비교 평가하여 온라인목록의 Open API기반 메타 검색시스템의 유용성이 높다고 결론지었다.

2.2 SNS 활용 서비스

최민재(2009)는 최근 부각되고 있는 소셜미디어의 개념적 범주화와 더불어 소셜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일반 네티즌의 인식을 조사하였는데, 이에 대한 결과는 미디어 수용자들은 전통 미디어의 콘텐츠보다 소셜미디어의 콘텐츠에 주목하고 있고 향후 이러한 경향성은 더

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이유나와 문빛, 박건희(2010)는 소셜미디어 콘텐츠 품질을 다차원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측정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일환으로 대중들이 기업에서 제작한 동영상이나 이미지와 같은 소셜미디어 콘텐츠 품질에 대해 인식하는 차원들이 무엇인지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소셜미디어 콘텐츠의 주목성, 이해성, 공감성, 확장성은 통계적으로 신뢰할 만하고,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Kim, Yoo-Lee 및 Sin(2011)은 정보자원으로 사용되는 소셜미디어의 종류와 그 이유를 조사하였는데, 대학의 학부생들은 정보의 품질보다는 접근의 용이성이 수월한 자원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도서관 자원과 다르게, 소셜미디어는 이용자 전체에게 공유되고 신뢰도가 평가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부생들의 이용은 나쁘지 않은 평가를 유도할 것으로 보았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웹2.0 서비스의 하나인 매쉬업 검색 기능에 대한 이용자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설문에 대한 조사기간은 2013년 6월 24일부터 15일간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16개 문항 즉, 일반사항인 3개 문항과 도서관 홈페이지 매쉬업에 관한 6개 문항, 그리고 SNS 사용에 관한 7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구성된 설문지에 기초하여 웹2.0서비스 "PYXIS"를 사용하는 종합대학교 25개 도서관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여 이 중 13개 도서관의 교수 2명, 대학원 19명, 학부생 94명, 졸업생 5명, 직원 49명의 분포로 총 169명의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에 대한 분석 및 통계 처리방법은 MS Windows용 SPSS 21 통계 패

키지 및 일반분석으로 통계처리하였다.

<표 1> 설문문항의 구성

측정 변수	측정내용	문항 번호	계
일반사항	성별	1	3
	나이	2	
	신분	3	
매쉬업	도서관의 정보 이용 동기	1	6
	매쉬업 제공 경험	2	
	매쉬업 사용 용도	3	
	매쉬업서비스 중 유용한 자료	3-1	
	매쉬업 자료 활용 않는 이유	4	
	매쉬업 서비스 사용 의향	5	
SNS	SNS 사용경험	1	7
	SNS 정보이용 동기	2	
	SNS 이용 목적	3	
	주로 사용하는 SNS	4	
	페이스북 기능 중 가장 많이 사용하는 기능	5	
	페이스북 유용한 정보 추천	6	
	페이스북 정보 신뢰 여부	7	

4. 분석결과 및 논의

4.1 도서관 매쉬업 검색 이용현황

도서관에서 정보를 이용하는 동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학술정보(연구, 과제, 시험, 어학 등)로 조사되었다. 169명 중 147명이 우선순위별로 1순위에 표시하였다. 취업정보(취업, 자격증 등)가 56명으로 2순위에, 취미정보(여행, 영화, 스포츠 등)가 36명으로 3순위에 조사되었다. 이와 같이 도서관에서의 정보 검색은 아직도 학술 목적으로 접근하는 경우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매쉬업 검색에 대한 사용 경험을 조사하는 설문에서는 “제공되는지 전혀 몰랐다”는 응답이 전체의 40.2%를, “알고 있으나 사용한 적 없다”가 25.4%로 나타나 매쉬업 사용 경험이 없다는 응답이 전체 65.6%를 차지했다. 이를 카이제

곱 검정 결과를 통해 신분별로 살펴보면 대학원생은 78%가 매쉬업 서비스를 알고 있었고 이 중 절반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서 학부생은 절반 이상(53%)이 모르고 있었고 아는 학생 중 19%만 사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직원은 82%가 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신분간에 매쉬업서비스 존재를 아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6.9%가 “각 포털에 직접 접속하는 것보다 검색결과가 적기 때문”으로, 44.9%는 “도서관 소장자료만 원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매쉬업 검색서비스에 대한 사용 의향을 묻는 설문에는 “인터페이스 및 기능 개선을 보고 사용을 결정할 것이다”의 응답이 63.5%를 차지하였고, 31.1%가 “사용할 것이다”로 응답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볼 때 매쉬업 검색에 대한 기능향상과 개선이 이루어진다면 이용자 측면에서의 도서관 검색 확장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4.2 SNS 이용현황

SNS를 사용해 본 경험이 전체 응답자의 87.0%가 “있다”고 대답하여 최근 SNS 서비스의 성장세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NS의 정보이용 동기에 대한 우선 순위별 조사에서는 “인맥정보”가 1순위로 가장 높았다. 169명 중 75명이 여기에 답하였고 2순위는 37명이 응답한 “취미정보(여행, 영화, 스포츠 등)”로 나타났으며, “생활정보”도 3순위에 가장 많은 응답을 보였다. 실제 SNS 이용목적에 묻는 질문에서도 “인맥형성(네트워크 형성)”이 76.2%를 차지하여 SNS의 쌍방향적 공유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리고 주로 사용하는 SNS를 순위별로 3가

지 선택하는 문항에서는 페이스북, 유튜브, 트위터 순으로 114명, 56명, 33명이 응답해 주어 페이스북에 대한 사용자들의 인지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페이스북에서 검색된 정보에 대한 신뢰를 묻는 질문에는 “보통이다” 56.9%, “그렇다” 21.5%로 응답하여 페이스북 정보의 기대할 만한 신뢰도에 대한 평가는 아직 이른 것으로 판단된다.

4.3 도서관 통합검색기능의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매쉬업 이용현황 및 SNS 사용현황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사용하는 도서관 매쉬업 검색기능에서 검색결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개선을 위해서 도서관 정보검색에서 다뤄야 하는 콘텐츠의 범위를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로 확장하고 이를 활용하는 도서관 검색 기능의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매쉬업 검색의 인터페이스와 기능 개선을 위해서 기존의 키워드 기반의 Open API 검색방식에서 선택적으로 구조화하는 방식의 Open API 개발을 통해 이용자측면에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소셜미디어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페이스북의 콘텐츠를 대상으로 도서관 정보검색의 확장으로 활용해 볼 수 있다. 페이스북에서 제공하는 Open API 값들 중 "category", "name", "story", "like", "댓글", "date", "link" 등의 요소를 활용하여 패킷구조의 통합검색환경을 제공한다면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유용한 정보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도울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페이스북과 도서관 홈페이지의 연결과정에 통합관리기능을 주어 원하는 형태대로 가공할 수 있을 것이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학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매쉬업 검색기능의 이용현황과 SNS 사용에 대한 현황을 살펴본 결과, 최근 소셜미디어의 발달로 인해 이용자가 직접 생산하고 유통시키는 이른바 “소셜콘텐츠”가 대중들의 정보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서관의 정보 콘텐츠의 범위를 소셜미디어의 콘텐츠로 확장하고 도서관 통합검색기능을 개선하는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개선된 통합검색기능이 도서관의 검색 인터페이스에 적용된다면 도서관정보시시스템을 통해서 도서관 고유의 정보는 물론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도서관의 정보검색환경이 좀 더 유연하고 확장된 모습으로 변모되어 도서관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오승천, 양정진. 2012. "에이전트 시스템 기반 향상된 매쉬업 서비스."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 논문집 39(1D): 456-458.
- 이유나, 문빛, 박건희. 2011. "소셜미디어 PR 콘텐츠의 품질평가." 홍보학연구 15(2): 83-115.
- 천동석 등. 2008. "키워드를 이용한 효율적인 웹 서비스 및 openAPI 검색엔진 개발." 한국컴퓨터종합학술대회논문집 35(1C): 159-164.
- 최민재. 2009. "소셜 미디어의 확산과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수용자 인식연구." 한국언론정보학회 학술대회 (12): 5-31.
- Kim, K.-S., Yoo-Lee, D.Y., Sin, S.-C. J. 2011. "Social Media as Information Source." ASIST 2011 October: 9-13.